

지스트-삼성전자, '채용연계' 인재육성 나선다!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 위한 협약 체결

- 가전제품 핵심 기술인 모터 기술 고도화 위해 맞춤형 커리큘럼 제공
- 석사과정 재학생 중 매년 15명 대상... 졸업 후 삼성전자 입사 연계



▲ 지스트와 삼성전자가 2월 15일(수) 오후 지스트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채용연계형 지능형 모터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와 삼성전자가 지능형 모터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과 연계된 '지능형 모터 트랙(Track)'을 석사과정에 신설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2월 15일(수) 오후 지스트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지스트 박지용 기획처장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무형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스트와 삼성전자가 설치·운영할 '지능형 모터 트랙'은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 관련 학과 재학생 중 매년 15명을 대상으로 모터에 특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계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지능형 모터 트랙'에 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및 학비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해외 저명 학회 참여 등 다양한 기회도 열려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지스트에 기금을 출연해 교육과정 개발 및 시설 투자, 해외학회 참석 등 인력 양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스트는 **모터 기술에 관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기계공학부·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AI 대학원** 등 관련 전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능형 모터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학부(과) 소속 교수 **11명**이 참여해 지능형 모터 분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 지스트 관련 학부(과): 기계공학부(역학·제어·설계 분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신호처리 분야), AI대학원(인공지능 분야)

모터 기술은 가전제품의 핵심적인 기술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운영하는 이번 트랙 신설을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차세대 지능형 가전제품 개발에 특화된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무형 부사장은 “모터 기술을 선도할 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스트와 특화 인재 양성 과정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가전제품의 혁신을 만들어갈 모터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스트 박지용 기획처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모터 특화 전문 인재 양성과 트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